**마2308 Note**

**◆도우미 : 랍비**

◇유대교에서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을 일컫는 말.

명칭의 유래는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며,

유대교에서 보통 종교학자, 혹은 율법학자를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된다.

용어 자체는 1세기 때부터 보편화되었다.

보통 랍비가 유대교의 성직자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랍비라는 개념은 성직자와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의 "마스터/티쳐" 또는 한국어의 "선생님"과 비슷한 위치의 단어이다.

유대교의 성직자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 그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다.

랍비란 유대교에 정통한 현명한 어르신이라 이해하면 된다.

예수도 복음서에서 존중받는 의미로 랍비라고 불렸다.

바리사이파는 유대교의 명실상부한 주류가 되었고, 토라 공부가 제사를 대신한다고 정평이 난 후에, 랍비와 토라 공부장소(예쉬바), 토라 낭독, 유대 회당(시나고그)을 중심으로 한 랍비 유대교가 수립되었고, 현대까지 발전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일개 학자들이던 랍비들의 권위도 성직자들의 지위를 흡수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해 엄청나게 신장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유대교는 이전의 성전 의식 중심의 정통

유대교와 구분하여 '랍비 유대교'라고 불리게 된다.

유태인들의 탈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들이라서인지 지혜로운 역할로

자주 등장한다. 아버지와 동급 혹은 이상으로 취급받는다.